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우리 모두 변화와 혁신에 스스로 그리고 즐겁게 맞춰나갑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정신적으로 운택한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이화석

□ 경제 강국 한국

21세기는 두뇌전쟁, 시장개발을 통한 경제 전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장개발을 통한 경제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11위, 수출 세계 12위, 수입 세계13위, 외환 보유고 4위의 경제 강국이다. 또한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전자제품 생산량 세계 3위, 조강 생산량은 세계 5위이고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6위이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1위이고 휴대폰 보

유수는 3천6백만 명이다. IT시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되어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5천년의 사상 최대의 번영기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는 일본과의 30~40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역사이다. 뒤돌아 본 때 중국관계에 있어서 사람, 돈, 물자, 정보 등 모든 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일방통행의 역사였다. 문명전이 북투쟁에 북화씨를 숨겨 들어온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중국과의 국교가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750억 달러가 넘었다. 중국 칭다오(靑島)시에는 3,700개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인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칭다오시 전체 교역량의 42%를 우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즉 물자와 돈이 과거와는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과거 역사상 중국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중국의 실세들은 하나도 빼짐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 사람들은 외교, 정치 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경제를 배우러 온 것이다.

□ 눈앞의 글로벌 스탠더드

경제와 기업 활동이 세계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실행하고 있는 상이한 제도나 규칙 간에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기업제도와 규칙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여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란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약속이나 규범”으로서 국제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이 조류에 뒤쳐지는 국가와 기업은 통상 압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제 거래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된다.

국가경제와 기업 활동의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세계

화를 지향한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지지만 자칫 제도와 규범의 혁신에 소극적이거나 기본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20세기 후반에는 정부주도·규제 중심의 아시아형 발전전략이 강세를 보였지만 21세기에는 하드웨어(제조) 중심의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창조형 사회로 전환하는 미국의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MS社의 OS와 INTEL社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세계표준을 징악하였는데 이는 창조적 시장경제와 활력 있는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적 방식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일류기업들은 시스템 조정과 글로벌 스탠더드화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ABB는 세계 140여 개국에 거점을 두고 PC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세계적 정보망 구성과, 20만 명의 전체 종업원 중 본사 스텝은 150명(임원은 8명)에 불과한 조직 슬림화로 세계화에 앞서가고 있다.

또한 일본은 폐쇄체제 하의 규제 중심 발전 전략, 국내 완결형 생산 및 판매, 계열거래형 제조업 위주의 경제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깨닫고 일본형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계 표준에 입각한 경쟁규범 및 경영방식이 확산되고 자기책임 원칙이 철저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업경영에서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편

으로 적용되어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체제로 관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을 모두 허물어 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어쨌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글로벌화”의 대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진다. “피하지 못할 바에는 즐겨라!”라는 말처럼 어차피 “글로벌화”가 피하지 못할 시대적 조류라면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창기인 1967년 수출시장 확보차원에서 당시 WTO전신인 가트(GATT)에 가입해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적극 활용해왔다.

수출 주도형 산업형태인 우리나라는 역내 회원국에는 상호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비 회원국에 대한 차별 입장의 성격을 갖는 FTA에 대해 전통적으로 비판적이었고,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데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 수가 거의 150개에 이르게 되면서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한 무역확대 노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가 각기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들 까지도 WTO를 통한 다자 차원의 무역확대 노력 보다는 FTA를 통한 양자 혹은 지역차원의 무역확대에 더욱 열

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FTA를 통한 시장경쟁력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하에 관세에 의한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자국의 산업을 관세가 아닌 기술로서 보호하려는 “무역상 기술 장벽(TBT)”이 대두가 되었다. 일례로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EU에서는 2006년 7월부터 RoHS(전기전자제품에 대한 6대 유해물질 규제)를 발효하고, ISO는 기업 차원의 환경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별로 상이한 환경 관련 규격들을 통일시켜 환경인증(ISO 14000)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적합성 평가시장의 규모는 약 1조원, 세계시장은 약 180조원의 규모로 선진 외국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하나의 “산업 분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내 제조자가 외국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소재 외국 시험·인증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년 간 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역량은 선진외국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나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적합성 평가제도와 적합성 평가기관의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분야의 국제화와 평가 기관

의 능력향상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부문별 글로벌 스탠더드를 파악하여 이를 수용 개발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표준을 형성하여 이를 국제화함으로써 글로벌화의 선봉자 적인 입장으로 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二 글로벌 경쟁력의 전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휴대폰 등 10여개 주요 품목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 10개 품목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이 세상이 영원한 Blue Ocean은 없다. Blue Ocean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도 언젠가는 Red Ocean으로 되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에 급급해 진다. 글로벌 경쟁력의 본질은 차별화를 통한 기지창조라고 생각한다. 그 기지는 고객이 판단하고, 판단의 기준은 차별화 되고 차별화된 기준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경쟁력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것은 세상에서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수 없다. 경쟁력의 전술은 전략과 실행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 있기 까지는 우리만의 전략과 전술을 이용한 무기로 모든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략 품목을 만들 수 있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로 이미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자가 행해왔던 전략을 답습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자 지배 논리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되어야만 살아 나갈 수 있다.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어떠한 조직 내에서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진다.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조직에 있으나 떠나한 사람, 조직이 없어지는 안 될 사람. 개인적으로도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벌 경쟁력 없이는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21세기를 살아 갈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승리자의 길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21세기란 세계화 전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이란 무기를 개발하여 갖추고 세계로 침투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준

